2022년 8월 7일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WORSHIP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2) 찬양은 예비과정이 아니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WORD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WORK

1)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일설교

제목: 자유를 얻은 신자(성도)에게 주는 권면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15절

갈라디아서는 사도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갈라디아서 1:2-3절). 내용은 바울 자신은 참된 사도이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동등한 권위가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신칭의(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음)'의 복음은 행위를 대체한다고 주장합니다(3:21-22절). 목적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과 풍습(특히 '할례')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옹호하며(5:1절), '이신칭의'의 복음의 정당함을 입증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은 신자(성도)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거듭난 신자(성도)가 가진 '자유'를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게 된 자유를 결코 빼앗길 수도 없고, 상실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13절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체'란,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과거와 같이 여전히 죄의 속성을 따라가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신자(성도)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시 죄의 종으로, 빚진 자의 삶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신자(성도)는 얻은 자유를 상실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 모든 신자(성도)는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여러분! 거듭난 신자(성도)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합니까?
2.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본 회퍼의 "자유"

본회퍼는 독일 루터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반나치운동가였다.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첩보국에 관여를 하다가 발각되어 핍박을 받고 처형당한 목사로 알려져있다. 그가 베를린 신학교 학부를 졸업할 때 쓴 졸업 논문 '성도의 교제' (communio sanctorum) 를 칼 바르트가 극찬했을 정도로 그는 순교자이기 이전에 탁월한 신학자였다. 오늘날까지도 전문적인 신학과 철학 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평신도들 뿐 아니라 목사들까지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덴마크의 기독교 사상가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이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값싼 은혜를 독일 교회에 가져왔음을 그의 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에서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가 유니온 신학교에 그를 위한 교수자리를 마련해 놓고 미국으로의 망명을 권유했지만, 그는 독일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한 일화는 그의 됨됨이를 잘 보여준다.'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히틀러가 직접내린 사형명령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본회퍼의 기도문은 가슴을 찡하게 한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마땅히 고난의 길을 걸었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예수만을 의지하며 박해의 시기에 모범이 되었다. 그가 처형당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음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는 독일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을 때 홀로 목소리를 낸 순교자라는 점에서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자 많은 목사들이 타협, 신사참배를 하고있을 때, 홀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온갖 고문을 다 받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닮았다. 그는 진정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한 그리스도인이였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당신 앞에 죄인 된 몸으로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등졌습니다. 큰 거짓이 머리 드는 것을 보면서 진실을 영예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절박한 처지를 보면서 자신의 안전만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자비의 근원이신 당신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섰습니다.
무서운 시절의 소란이 끝나면, 우리에게 확신의 시절을 주소서.
이 오랜 어둠 속 방황이 끝나면, 우리로 하여금 밝은 햇빛 아래로 걷게 하소서.
거짓의 굽은 길이 끝나면, 우리에게 당신 말씀의 길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의 범죄를 씻어주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여, 견디게 하소서.
오, 하느님, 이른 새벽 제가 당신을 바라고 웁니다.
저를 도와주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출처: 디트리히-본회퍼의-기도과-고백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티스토리]

THINK

본회퍼는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초청받아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며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영원한 삶을 위해, 이 땅의 삶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자유를 억압받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형제 북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전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요예배 담당안내					
담당	8월 3일	8월 10일	8월 17일	8월 24일	8월 31일
마을특송	샘솟는	섬김	샬롬	온유	청장년
대표기도	장정숙 권사	안병자 권사	최오숙 권사	한영문 권사	이은자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8월 6일	8월 13일	8월 20일	8월 27일	9월 3일
본당청소	행복한	샘솟는	섬김	샬롬+청장년	온유
중식봉사					

주요광고

◉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4층 VIP실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중식을 대신하여 간단한 김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서 여름행사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청년부(청년옥합)하계 수련회 / 주제: 회복, 다시 세움 / 일시: 8.14(주일)~8.15(월) / 장소: 용인

◉ 청년옥합 헌신예배 / 8월 21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3층 본당

◉ 목요 향기로운예배 / 8월 25일(목) 오전 11시부터 향기로운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 월요목양새벽기도회 / 일시: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 장소: 3층 본당(마을장,목자,교사,임원 필참).

▣ 파워전도대 토요전도 (2시 30분/ 2층 집합).
사랑 나눔 전도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주: 서리집사 / 다음 주: 새가족부)

▣ 교 우 소 식 ▣

◉ 치유 중보 기도: 김수차 권사/유수림 권사/김해생 권사/이문형 장로/김진석 집사/한정희 권사/
이향숙 사모/유춘자 권사/조병양 집사/조인상 집사/문동준 청년/최진수 장로/이은경 집사/장순희 집사

만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